

# 제주 가을장마 다음주까지 간다

### 26일부터 나흘간 최대 475mm 폭우 쏟아져 기상청 “장마전선 내달 1일쯤 또 영향줄 듯”

최근 제주지역에 시작된 가을장마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로 인해 이날까지(오후 5시 기준) 한라산 삼각봉에 475mm의 비가 내렸다. 다음으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한라산 영실로 436.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어리목 393mm, 성산 수산 344m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측 지점 누적강수량을 보면 제주시 189.7mm, 서귀포시 236.2mm, 고산 261.5mm, 성산 291.2mm를 기록했다. 가을장마는 해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8월말에서 10월 사이

중국 쪽으로 올라간 장마전선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부딪쳐 한반도를 지날 때 비를 동반하는 기상 현상이다. 형성된 장마 전선은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한반도 남쪽으로 남하하는데 올해는 제주도 주변에 정체전선을 형성해 영향을 주고 있다. 기상청은 29일 오후부터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함에 따라 나흘간 내렸던 비가 잠시 멈출 것으로 예측했다. 31일까지 최저기온은 21~24℃, 최

고기온은 27~29℃로 평년보다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은 내달 1일쯤 다시 북상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며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장기간 비가 지속되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달 1일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승인 불허하라” 반대주민들 기자회견

선흘2리 마을회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마을 역사상 최대인원인 주민 138명이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마을이장이 해임되고 이장이 사업자와 비밀리에 맺은 협약서 무효를 결정했다”며 “선흘2리 마을에는 찬반 논란 따위는 없으며 공식 입장은 초지일관 반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물방울 속 세상 비날씨가 이어진 29일 제주시 오라동 한 정원에 심어진 식물 가지에 달린 물방울 속에 시가지 모습이 보인다. 김희만기자

이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초기부터 공유지 되팔기, 12년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사 논란 등 언론의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청정’과 ‘공존’의 슬로건이 거짓이 아님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불허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조전을 일대의 랍사르 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모두가 함께 지키고 전승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원지사는 세계자연유산을 지키는 것인지, 동물원을 유치해 세계자연유산 재지정을 막은 국내 유일의 반생태적 도지사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청 사업 담당부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 제주 악성 미분양주택 사상 최대

### ‘준공후 미분양’ 777호 기록 이주선호 서귀포지역 집중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이후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7월 중 도내 미분양주택은 1161호로 전월의 1218호에 비해 57호(4.7%) 줄었다. 전국평균 1.8%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됐지만 2017년 이후 줄곧 1100~1200호 대를 고수하면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기준, 도내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77호로 지난 4월 774호의 기록을 넘어선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 5월 732호에서 6월 681호(제주시 295·서귀포시 386)로 소폭 감소

했지만 지난달 96호(14.1%)가 늘어 다시 700호 대로 회귀하며 침체된 도내 주택매매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타지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이주인구가 선호하는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됐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월 기준 6만2529호에 이른다. 이는 전월의 6만3705호에 견줘 1176호(1.8%)가 감소한 수치다. 준공후 미분양은 6월 1만8693호에서 401호(2.1%) 증가한 1만9094호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만7574호로 전월의 5만8295호에 비해 52.7%, 5년 평균 5만9454호에 견줘 53.6% 각각 감소했다. 제주지역의 7월 실적은 58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8호 비해 41

호(7.5%)가 늘었지만 올해 누계는 3039호로 작년 동기의 4910호보다는 1871호(38.1%) 줄었다. 5년 평균 8625호에서 올해 누계치는 5568호(64.8%) 급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30일 금요일 음 8월 1일 (8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 구름 많음

제주에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4℃, 낮 최고기온은 27~29℃이다. 9월 4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 저지대는 만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06	달뜨기 05:26
해질미 19:03	달지기 19:13
물때 만조 10:14	간조 04:53
23:02	16:50

###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21/28℃
모레	흐리고 비	22/27℃

###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높음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재래시장 추석 성수품 구입비 24만원”

### 제주상의 조사결과

제주상공회의소가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도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제주성수품 구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구당 23만792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상의는 지난 26~27일 조사한 제주성수품 26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내리며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선선한 여름날씨로 인해 채소 출하량이 늘고 과일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확량이 미비한 사과·배 등의 과일 및 시금치·도라지 등 채소의 거래가격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과일류 6개 품목의 경

우 지난해 추석대비 5.2% 상승한 6만167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과(5개 기준)는 10.1% 오른 1만4670원, 배는 8.3% 상승한 1만5330원이 예상된다. 하우스감골·밤은 소폭 오르고 대추·곶감은 보험세나 소폭 내리겠다. 채소류 8개 품목은 지난해 대비 4.1% 감소한 4만122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호박·파·말린 제주고사리·무·표고버섯·콩나물 등이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금치는 25%, 도라지는 5.3% 각각 상승했다. 소고기 등 육·란류와 해산물류 7개 품목 구매비용은 10만9030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1.0%의 부담이 준다. 또한 두부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의 구입비는 지난해보다 5.3% 하락한 2만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 제주항공 고객대상 이벤트

제주항공이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전국 1만3000여개 CU(씨유) 편의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항공권과 중

국 노선 할인쿠폰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CU 편의점에서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http://www.jeju-solar.co.kr)